

언간에 나타나는 친족 관련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출현양상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어사 전공
leehj@aks.ac.kr

- I. 머리말
- II. 한자어 접두과생어의 확립
- III. 언간에 나타나는 친족 관련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의미와 기능
- IV. 맺음말

I. 머리말

국어 화자의 직관에 의존할 수 없는 지나간 시대의 단어형성을 연구하는 일은 대상 자료의 선정에서부터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특히 문헌자료를 통해 지나간 시대의 한자어 단어형성 연구를 할 때는 그 대상 자료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헌자료를 이용해 지나간 시대의 한자어 단어형성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국어사 문헌자료에 나타난 한자어가 실제 국어 어휘로서의 한자어인가 아니면 문헌에서만 존재하는 한자어인가 하는 것이다. 국어사 문헌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해자료는 언해의 대상이 된 한문 원문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언해자가 한문 원문의 한자어를 그대로 언해문으로 가져왔을 경우, 그 한자어는 실제 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언해자료를 통해 그 당시의 한자어 단어형성을 연구하는 것은 그 당시 화자의 어휘부에 한자어가 어떻게 저장되고 운용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 한자어 연구를 할 때 언해자료에 나타나는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상 문헌에 등장하는 한자어를 그 국어화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어사 한글 문헌에 등장하는 한자어에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문헌의 성격, 한자어의 표기 형식, 원문 한자와의 의미의 일치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자어의 국어화 정도를 판단해야만 어느 정도 유효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언해자료를 통한 한자어 단어형성 연구의 복잡한 연구절차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주고받은 인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 국어로서의 한자어에 관심이 있는 이 글에서는 국어사 문헌자료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만약 언해문이 아니어서 나타나는 한자어가 한문 원문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실제 국어로서의 한자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일상의 사적인 발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술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자연스러운 국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찍이 국어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높았다. 그리고 인간은 주로 친족들 간에 주고받은 것이 주를 이룬다. 여타의 국어사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친족 관련 어휘가 가장 풍부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¹⁾

이 글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에 나타나는 친족 관련 접두사성 한자어의 출현양상을 검토하고, 이러한 친족 관련 접두사성 한자어가 국어 화자의 어휘부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어느 정도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친족어에 결합하는 한자어 형태소 ‘친(親), 외(外), 시(孀), 처(妻)’가 인간에 나타나는 양상을 검토하고 이 한자어 형태소의 의미기능과 어휘부 내에서의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자어 접두과생어의 확립

국어 어휘부에 저장된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어 형태소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설명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어휘부에 저장된 국어 한자어 중에는 그 구성요소를 국어 화자들이 거의 분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한자어 형태소는 국어 화자들이 쉽게 분석하여 국어의 단어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연구(研究)’라는 한자어의 경우

1) 인간 연구의 시발점인 관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에 비교적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의 일이다. 인간은 개인마다 필체가 다양하고 글씨를 흘려쓴 정도가 심하여 관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자들이 쉽게 연구자료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부터 국어학자가 주도하는 역주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조항범(1998), 백두현(2003) 등의 결과물이 출간되어 인간자료가 국어학계의 조명을 받게 되었고 인간이 국어사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황문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인간 역주사업의 결과물을 출판하기 시작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2009). 이러한 대규모 역주사업의 결실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관독문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자료의 수가 400건을 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무려 2,700여 건이 넘는 결과물을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이러한 연구업적을 기반으로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2016)이 편찬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어휘사전이 대상으로 한 한글편지 총 1,465건에서 수집한 친족 관련 어휘들을 분석하였다.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국어 화자는 ‘연(研)과 ‘구(究)를 쉽게 분석해내지 못한다. 반면에 ‘폐휴지’, ‘폐가전’, ‘폐유’ 등에서의 ‘폐’는 쉽게 분석해낼 수 있다.

후자에 속하는 한자어 형태소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어형성에서 접사적 성격을 가지는 한자어 형태소들이다. 노명희(2005: 23)에서 제시한 “기능소Ⅲ”이 여기에 해당한다.²⁾ 그리고 안소진(2014: 84-98)에서는 이러한 한자어 형태소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 화자가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일관된 의미를 보이면서 여러 단어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드러지며 자립적인 단위에 붙어서 접사적인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국어의 자립적인 구성성분과 결합하여 접사적인 역할을 하는 한자어 형태소는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쉽게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능을 하는 단위로까지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II장에서는 언간에 나타나는 친족 관련 접두사성 한자어의 출현양상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현대국어의 한자어 형태소 ‘생(生)’을 통해 한자어 어근이 접두사성 한자어 형태소의 단계를 거쳐 한자어 파생접두사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살아 있는, 태어난”

생가(生家), 생년(生年), 생일(生日), 생기(生氣), 생물(生物), 생계(生計), 생업(生業), 생활(生活)

(2) “가공하지 않은”

(가) 생과(生果), 생물(生栗), 생채(生菜), 생즙(生汁), 생식(生食)

(나) 생감자(生柑子), 생고구마(生-), 생나물(生-), 생도라지(生-), 생라면(生-), 생밤(生-), 생국(生-), 생김치(生-), 생과실(生果實), 생맥주(生麥酒), 생우유(生牛乳), 생식품(生食品), 생과일(生-), 생토마토(生-), 생과자(生菓子), 생머리(生-), 생가죽(生-), 생고무(生-), 생모시(生-), 생방송(生放送), 생중계(生中繼), 생백신(生-), 생크림(生-), 생필름(生-)

(3) “이유 없는”

생죽음(生-), 생귀신(生鬼神), 생고생(生苦生), 생고집(生固執), 생사람(生-), 생야단(生-), 생트집(生-), 생억지(生-), 생난리(生亂離), 생소리(生-), 생과부

2) 노명희(2005:23)에서 제시한 “기능소Ⅲ”으로 제시한 접두기능소와 접미기능소가 이러한 형태소에 해당한다. 접두기능소로는 ‘대(大)규모, 무(無)-의미, 불(不)-평등, 신(新)-개발’ 등이 해당되고, 접미기능소로는 ‘국가-적(的), 개방-성(性), 화학-자(者)’ 등을 제시했다.

(生寡婦), 생이별(生離別)

예문 (1)의 예들에서 ‘생(生)’은 “살아 있는, 태어난”이라는 의미의 한자어 어근으로 쓰여 후행하는 또 다른 한자어 어근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생(生)’이 가진 한자 본래의 의미이다. 그런데 예문 (2)에 나타나는 ‘생(生)’은 예문 (2)(가)와 같이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문 (2)(나)와 같이 국어의 자립성 어간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문 (2)의 ‘생(生)’은 “가공하지 않은”의 의미를 가지고 후행하는 성분을 수식하고 있는데, 특히 예문 (2)(나)의 예들은 “가공하지 않은”의 의미를 가지고 한자어 자립어간, 고유어 자립어간, 그리고 외래어 자립어간과도 폭넓게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문 (2)(나)의 예들은 자립어간에 선행하는 조어구성요소이고 여러 어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계열관계를 이루면서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예문 (2)(나)의 ‘생(生)’을 파생접두사의 성격에 근접하는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 부를 수 있다.³⁾

그러나 파생접두사의 의미는 한자 본래의 의미와는 구별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예문 (2)(나)가 가지고 있는 “가공하지 않은”의 의미는 예문 (1)의 ‘생(生)’이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의 의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예문 (2)(나)의 ‘생(生)’을 한자어 파생접두사라고 할 수는 없다.

파생접두사는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

3) 파생어 형성이란 어기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다. 한자어 파생접두사는 고유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파생접두사의 확립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파생접두사는 어휘부 안에서 결합한다. 따라서 어휘고도제약을 지킨다.
2. 파생접두사는 공식적으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으며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다.
3. 파생접두사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만든다.

따라서 ‘파생접두사의 의존성’, ‘어기의 자립성’, ‘분리성’, ‘후속어의 제약성’, ‘대치 가능성’, ‘의미의 변화 여부’ 등이 파생접두사를 변별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생산력 있는 파생접두사로서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파생접두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열을 이루고 새로운 단어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글에서 ‘접두사성 형태소’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어의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엄격한 의미의 ‘파생접두사’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예문 (3)에 제시한 예들이다. 일단 예문 (3)의 ‘생(生)과 결합한 성분들은 모두 국어의 자립어간이고 여러 어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계열관계를 이루는 점은 예문 (2)(나)와 같다. 그러나 예문 (3)의 ‘생(生)’은 예문 (1), (2)의 ‘생(生)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살아 있는”이나 “가공하지 않은”과는 관련이 희박한 “이유 없는”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자어 파생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도 언어현상의 하나이므로 일정한 규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자어 접두사를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국어의 파생규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파생어 형성에 작용하는 일정한 제약이나 조건을 밝혀내야 한다. 파생어 형성은 일종의 언어규칙이므로 제약이나 조건이 따르는데 이를 정확히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예문 (3)의 한자어 파생접두사 ‘생(生)’은 후행 어기의 범주가 명사어간이라는 제약을 갖는다. 그리고 의미론적 제약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어기보다는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어기”에 더 잘 결합한다. 예문 (3)에서 ‘생(生)’과 결합한 어기는 ‘죽음, 귀신, 고생, 고집, 야단, 트집, 억지, 난리, 과부, 이별’ 등의 부정적인 의미의 어간들이다.

Ⅲ. 인간에 나타나는 친족 관련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의미와 기능

1. 인간에 나타나는 친족어의 출현양상

인간은 떨어져 있는 친인척 간에 이루어진 중요한 의사 전달 수단이었다. 부부간, 모녀간, 모자간, 부녀간, 고부간(시모와 며느리 사이), 구부간(시부와 며느리 사이), 조구부간(조부와 손부 사이), 조손간(조부와 손녀사이), 조모와 손자 사이), 처부모간(장모와 사위 사이), 형제자매간(누이와 오빠 사이), 숙질간(숙부와 질녀 사이, 숙모와 질부 사이, 숙모와 질녀 사이), 동서 간, 사돈 간(안사돈 간)에 인간을 주고받았다.

따라서 인간에는 다양한 친족어들이 나타난다. 인간에 나타나는 친족

어들을 살펴보면 친족의 계통을 나타내는 데는 한자어 형태소 ‘친(親) 외(外), 시(孀), 처(妻)’가 쓰였고, 친족 내에서의 순위/손아래를 나타내는 데는 고유어 형태소 ‘똥-, ‘큰-, ‘작은-’ 등이 쓰였다.⁴⁾

언간자료에서 순위/손아래를 나타내는 고유어형태소가 결합한 친족어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⁵⁾

(4)

(가) 맏아기 <순천김씨묘-053-1, 1550-1592>

똥아기 <순천김씨묘-069, 1550-1592> <순천김씨묘-084, 1550-1592> ,

똥아기네 <순천김씨묘-091, 1550-1592> <순천김씨묘-099, 1550-1592>

똥오라바님 <순천김씨묘-082, 1550-1592>

똥형님 <순천김씨묘-064, 1550-1592>

(나) 큰사름 <선찰-9-099, 1697>

큰아기시 <진주하씨묘-109, 17세기 전기>

큰아덜 <송병필가-86, 미상>

큰아바님 <송병필가-85, 1908> <송병필가-76, 1922> <김성일가-149, 1850> <송병필가-77, 1922>

큰아즈마님 <추사-01, 1818>

큰어마님 <김성일가-147, 1848> <김성일가-147, 1848> <김성일가-148, 1849> <송병필가-78, 1922> <김성일가-146, 1848>

큰외삼촌 <송병필가-50, 1875>

큰외숙 <송병필가-81, 1920>

큰한아바님 <송준길가-97, 1727-1748> <송준길가-98, 1748>

(다) 존아기네 <진주하씨묘-157, 1624>

언간자료에는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외-(외며느리, 외아들)’, ‘막내-(막

4) 현대국어에서 친족어와 결합되어 친족 내에서의 서열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고유어 형태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맏-: 맏아들(=장남), 맏딸(=장녀), 맏누이, 맏손자, 맏누이, 맏동서, 맏매부, 맏사위, 맏손녀, 맏시누, 맏언니, 맏오빠, 맏자식, 맏조카, 맏형수

큰-: 큰아들(=맏아들), 큰아버지, 큰오빠(맏오빠), 큰형(맏형), 큰누나, 큰딸, 큰손녀, 큰시누, 큰아저씨(=큰삼촌), 큰할머니, 큰할아버지

작은-: 작은누나, 작은손녀, 작은시누, 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님, 작은조카,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5) 언간 외의 국어사 문헌자료에서 순위/손아래를 나타내는 고유어 형태소가 결합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똥누위’ <권남:18b>, ‘똥누의’ <동신열:59b>

큰형 <노길하:21b> <박통상:36a>

내동생, 막내아들)’는 보이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 한자어 형태소 ‘친(親), 외(外), 시(媿), 처(妻)’는 친족의 계통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부계의 피붙이”는 ‘친(親)’이 담당하고, “모계의 피붙이”는 ‘외(外)’가 담당한다. 그리고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의 경우 ‘나’가 남성인 경우에는 ‘처(妻)’가 쓰이고 ‘나’가 여성인 경우에는 ‘시(媿)’가 쓰인다.

친족의 계통을 나타내는 한자어 형태소들이 언간자료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2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부계와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친(親)’과 ‘외(外)’의 출현양상

현대국어에서는 친족어에 결합하여 부계와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한자어 형태소로 ‘친(親)’과 ‘외(外)’가 있다. 이 절에서는 한자어 형태소 ‘친(親)’과 ‘외(外)’가 언간자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먼저 한자어 형태소 ‘친(親)’이 나타나는 용례이다.

(5) “가까운, 몸소”

[미자립성 한자어 어근에 결합]

친구(親舊) 〈선세언독-18, 1687-1696〉 〈선세언독-18, 1687-1696〉 〈김성일가-096, 1849〉 〈순원어필-2-03, 1851〉 〈선찰-9-019, 1682-1709〉

친스(親事)⁶⁾ 〈송병필가-35, 1888〉

친필(親筆) 〈이동표가-27-1, 1683〉

예문 (5)에서는 ‘친(親)’이 “가까운” 또는 “몸소”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 어근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친(親)’이 자립성 어간에 결합한 예는 국어사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⁷⁾

다음은 “혈족”의 의미로 ‘친(親)’이 쓰인 경우이다.

6) 친스(親事): 혼담(婚談, 혼인에 대하여 오가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7) “가까운, 몸소”의 의미를 가진 ‘친(親)’은 언간 외의 국어사 문헌에 다음과 같은 용례들이 보인다.

親賓 〈가례10:23b〉, 친구(親舊) 〈동신속삼강, 충1:56〉 〈역해보33〉 〈인어2:12〉, 親疏 〈여훈상:42a〉, 親迎 〈가례4:8a〉, 親友 〈가례5:17a〉, 친우(親友) 〈가례5:17〉, 親厚 〈가례5:24a〉, 친형(親行-) 〈동신열3:58b〉, 친영(親迎) 〈계축52〉, 친필(親筆) 〈山城108〉, 친압(親押) 〈법화5:14〉

(6) “혈족”

(가) [비자립성 비친족어 어근에 결합]

- 친가(親家, 본가) <추사가-34, 1831>
- 친구가(親舅家, 친정과 시집) <김성일가-086, 1846>
- 친당(親堂, 친부모) <송병필가-73, 1886>
- 친댕(親庭) <추사가-44, 1831>
- 친딕(親宅, 친정) <송병필가-80, 1892> <송병필가-25, 1870>
- 친로(親老, 늙은 부모) <추사-13, 1828>
- 친문(親間, 아버님 소식) <김성일가-155, 1877>
- 친안(親顔, 부모의 얼굴) <김성일가-104, 1847>
- 친절(親節, 아버이의 기거동작을 높여 이르는 말) <송병필가-77, 1891>
- 친정(親庭) <추사가-43, 1831> <김성일가-131, 1833> <추사가-40, 1832> <송병필가-60, 1890> <김성일가-157, 1839>
- 친진(親盡, 제사 지내는 대의 수가 다 됨) <순원어필-1-15, 1851>
- 친환(親患, 부모의 병환) <추사가-23, 1791> <봉서-08, 1837-1857> <봉서-06, 1837-1857> <명성황후-025, 1882-1895>
- 친후(親候, 부모의 기거나 건강 상태) <추사가-16, 19세기> <추사가-43, 1831> <추사가-44, 1831> <추사가-08, 1818> <추사가-12, 1828> <추사가-13, 1828> <추사가-13, 1828> <추사가-13, 1828> <추사-17, 1828> <추사-18, 1828> <추사-19, 1828> <송병필가-85, 1908> <추사-15, 1829>

(나) [비자립성 친족어 어근에 결합]

- 친녀(親女, 친딸) <송병필가-38, 1898>
- 친즈(親子, 친자식) <추사가-03, 1775>
- 친즈딜(親子姪, 친자손) <추사가-03, 1775>

(다)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

- 친어버이 <진주하씨묘-006, 17세기 전기>
- 친즈식 <진주하씨묘-006, 17세기 전기> <추사가-02, 1775>
- 친형 <봉서-13,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언간에서 “혈족”의 의미를 가진 ‘친(親)’은 친족어에 결합하는 경우보다 예문 (6)(가)의 예들처럼 비친족어에 결합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 예문 (6)(가)의 예들을 통해서 ‘친(親)’이 별다른 제약 없이 다양한 의미의 한자어 어근과 결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언간자료에서 ‘친(親)’은 “혈족”의 의미를 가지고 후행하는 한자어 어근을 수식하는 구성요소로 쓰이는 것이 주된 기능이였다.⁸⁾

한편, 예문 (6)(다)의 예들에서는 ‘친(親)’이 국어의 자립성 어간에

결합하면서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모습을 보인다. 즉, 국어의 자립성 명사어간 ‘어버이, 즈식, 형’에 선행하여 후행하는 자립성 어간이 혈족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⁹⁾ 그러나 국어의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 발전한 예문 (6)(다)의 예들에 나타나는 ‘친(親)’은 한자의 본래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예문 (6)(가), (나)와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한자어 형태소 ‘친(親)’이 인간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의미 기능은 현대국어에 와서도 예문 (7)과 (8)에서와 같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문 (7)은 “가까운, 몸소”를 뜻하는 한자어 어근으로서의 기능으로, 예문 (8)(가), (나)는 “혈족”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 어근으로, 예문 (8)(다)는 국어의 자립성 어간에 결합하여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 쓰인 경우이다.

(7) “가까운, 몸소”

[미자립성 비친족어 어근에 결합]

친감(親監), 친견(親見), 친경(親耕), 친고(親告), 친교(親交), 친람(親覽), 친림(親臨), 친면(親面), 친문(親問), 친문(親聞), 친봉(親捧), 친봉(親朋), 친서(親書), 친서(親署), 친선(親選), 친수(親受), 친영(親迎), 친작(親作), 친필(親筆)

(8) “혈족”

(가) [미자립성 비친족어 어근에 결합]

친가(親家), 친계(親系), 친고(親故, 친척과 오래된 친구), 친교(親教, 부모의 가르침), 친권(親權), 친권(親眷, 일가권속), 친기(親忌, 부모의 제사), 친당(親堂, 친부모), 친등(親等, 친족 관계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 친명(親命, 부모의 명령), 친산(親山, 부모의 산소), 친상(親喪, 부모의 상), 친생(親生), 친속(親屬), 친솔(親率), 친안(親顔, 부모의 얼굴), 친정(親庭), 친족(親族) 친연(親緣, 친척으로 맺은 인연), 친행(親行, 시집 간 여자가 친정 아버이를 보러 감), 친환(親患, 부모의 병환)

(나) [미자립성 친족어 어근에 결합]

8) 인간자료 외에 국어사 문헌에서 ‘친(親)’이 “혈족”을 뜻하는 한자어 어근으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친상(親喪) 〈동신열3:58〉, 親生하다 〈박통중:9b〉, 친속(親屬) 〈오윤2:12〉, 親屬 〈가례10:26a〉, 친당 〈오윤4:57〉

9) 인간자료 외에 국어사 문헌에서 ‘친(親)’이 자립성 어간에 결합하여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 쓰인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親아으 〈가례도:21b〉, 친어미 〈동신효8:72b〉, 親子女 〈경민중:6a〉, 親弟兄 〈박통상:63b〉, 친즈식 〈동신효8:53b〉, 親兄弟 〈가례1:16b〉, 친동싱 〈변노상16〉 〈노걸상:14b〉, 親同生 〈노걸상:15a〉, 親子女 〈경민중:6a〉

친녀(親女), 친모(親母), 친부(親父), 친수(親嫂, 친형제의 아내), 친수숙(親嫂叔), 친제(親弟), 친질(親姪), 친자(親子)

(다)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

친남매(親男妹), 친누이(친-), 친동기(親同氣), 친동생(親同生), 친딸(친-), 친부모(親父母), 친부형(親父兄), 친사돈(親查頓), 친사촌(親四寸), 친삼촌(親三寸), 친아들(親-), 친아버지(親-), 친아비(親-), 친아우(親-), 친어머니(親-), 친어미(親-), 친어버이(親-), 친언니(親-), 친오빠(親-), 친자식(親子息), 친형(親兄), 친형제(親兄弟)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친(親)’이 새로운 의미기능을 가지고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한다. 예문 (9)의 예들은 ‘친(親)’이 “혈족”의 의미와 구별되어 “부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형태소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친(親)’이 ‘외(外)’와 대립되는 “부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9) “부계의 피붙이”

(가) [비자립성 친족어 어근에 결합]

친손(親孫)

(나)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

친손녀(親孫女), 친손자(親孫子), 친조부(親祖父), 친조모(親祖母), 친할머니(親-), 친할미(親-), 친할아버지(親-), 친할아버(親-), 친삼촌(親三寸), 친사촌(親四寸)

예문 (9)에서는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외(外)’와 대립해서 “부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파생접두사로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의미 면에서 “혈족”을 뜻하는 예문 (8)의 예들이 한자의 본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예문 (9)의 예들은 “부계의 피붙이”라는 한자 본래의 의미와는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한자어 접두사로서 국어의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게 된 ‘친(親)-’은 결합상의 제약도 갖는다. “혈족”을 뜻하는 접두사성 형태소인 ‘친(親)’이 후행하는 여기에 별다른 제약을 갖지 않는 반면에 “부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한자어 파생접두사로 확립된 ‘친(親)-’은 거의 친족어 자립성 명사어간에만 결합한다.¹⁰⁾

10) “부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친(親)-’, 예외적으로 비자립성 비친족어 어근에 결합한

한편, 한자어 형태소 ‘외(外)’는 언간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0) “바깥의”

(가) [비자립성 한자어 어근에 결합]

- 외간(外間, 자기 집 밖의 다른 곳) <순명효황후-10, 1894-1895> <순원봉서-27, 1847> <순원어필-1-11, 1851> <순원어필-2-09, 1834-1849>
- 외간(外簡, 남편이 쓰는 편지) <송준길가-92, 1757>
- 외감(外感) <숙명-33, 1658-1674> <선찰-9-090, 1699>
- 외견(外見) <순원어필-2-07>
- 외국(外國) <명성황후-057, 1892-1895>
- 외당(外丁, 열다섯 살이 넘은 사내) <김성일가-049, 1848>
- 외도(外朝, 군왕이 국정을 듣는 곳) <순원봉서-04, 1846>
- 외모(外侮, 외부로부터 받는 모욕) <안동권씨-1, 1830>
- 외물(外物) <순원봉서-27, 1847>
- 외수(外數, 속입수) <홍선대원군-3, 1883>
- 외양(外樣) <순원어필-1-08, 1850> <순원어필-1-07, 1851> <송병필가-05, 1889> <송병필가-14, 1890> <송병필가-14, 1890>
- 외임(外任, 외관직) <추사가-23, 1774-1787> <김성일가-125, 1833> <김성일가-131, 1833>
- 외자(外資, 외상) <순천김씨묘-127, 1550-1592>
- 외처(外處) <김성일가-041, 1848> <봉서-11, 1891> <봉서-12, 1886-1896> <봉서-13,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봉서-14,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봉서-17,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명성궁녀-19, 1883-1895> <명성궁녀-30, 1883-1895>
- 외쌍(外甥, 편지에서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쓰는 일인칭 대명사) <송병필가-68, 1889> <송병필가-69, 20세기 전반> <송병필가-68, 1889> <송병필가-69, 20세기 전반>

언간자료에서 “바깥의”의 의미로 쓰인 ‘외(外)’는 모두 비자립성 한자어 어근과만 결합한다.¹¹⁾ 따라서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기능은 보이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도 “바깥의” 의미를 가진 ‘외(外)’는 언간에서와

예로 생김새나 체질, 성질 따위가 친가 쪽을 닮음을 뜻하는 ‘친탁(親-)’이 있다.

11) 언간자료 외에 국어사 문헌에서 “바깥의”의 의미로 쓰인 한자어 어근으로서의 용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외감(外感) <두창상:64b>, 外蓋 <가례8:13a>, 外國 <역어상:27a>, 外근(外根) <마경상:77b>, 外納 <가례6:15a>, 外郎 <박통중:59b>, 外大門 <가례도:1b>, 外名 <박통하:18a>, 外門 <가례1:10b>, 外房 <역어상:68a>, 外方 <역어상:9a>, 外城 <역어상:13b>, 外甥 <가례2:20a>, 외방(外方) <번노상41> <노해상37> <동문해상40>, 외성(外城) <아학상4>

거의 비슷한 용법을 보이지만, 자립성 어간에 결합하여 ‘외감각(外感覺), 외경험(外經驗), 외군(外軍), 외생식기(外生殖器), 외주인(外主人), 외촌(外村), 외출혈(外出血), 외민족(外民族)’ 등과 같은 예에서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자료에서 ‘외(外)’가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다음 예문 (11)과 같이 “모계의 피붙이”의 의미로 쓰일 때이다.

(11) “모계의 피붙이”

(가) [비자립성 비친족어 어근에 결합]

외가(外家) <김성일가-002, 1833> <김성일가-157, 1839> <김성일가-136, 1853-1866>

(나) [비자립성 친족어 어근에 결합]

외손 <순원어필-2-04, 1851-1857>

외조(外祖) <송병필가-50, 1875>

(다)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

외삼촌 <김성일가-120, 1846>

외손녀 <송병필가-59, 1902>

외손부(外孫婦) <김성일가-120, 1846> <김성일가-121, 1846> <김성일가-121, 1848> <김성일가-122, 1849> <김성일가-121, 1848>

외조모(外祖母) <자손보전-08, 1750>

외조부(外祖父) <김성일가-009, 1833> <송병필가-89, 1884>

‘외가(外家)’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외(外)’는 친족어 자립성 어간에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²⁾

현대국어에 들어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외(外)’의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서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 더욱 많은 친족어에 결합하게 되었다.

(12) “모계의 피붙이”

(가) [비자립성 비친족어 어근에 결합]

12) 인간 외의 국어사 문헌자료에서 ‘외(外)’가 친족어와 결합하여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예로 ‘외삼촌 <권념:20a>, 外孫 <역어상:57b>, 외손 <가례도:16b>, 외손녀 <동신열 2:88b>, 外孫孀 <역어상:57b>, 외삼촌(外三寸) <유합상20> <동문해상11>, 외손녀 <동신속삼강 열2:88>, 외아자비 <역해보32>’ 등이 있다. 그리고 비친족어에 결합한 경우는 ‘외가(外家) <선사내훈2상51>, 외시하다(外施-, 외척에게 은혜를 베푼다) <선사내훈2상53>’ 등이 있다.

외가(外家), 외성(外姓, 외가의 성), 외숙(外屬, 어머니나 아내의 일가붙이), 외외가(外外家, 어머니의 외가), 외족(外族), 외척(外戚), 외친(外親), 외탁(外-, 외편(外便), 외향(外鄉, 어머니의 고향), 외택(外宅, 남의 외가를 높여 부르는 말)

(나) [비자립성 친족어 어근에 결합]

외손(外孫), 외숙(外叔), 외제(外弟, 이종제), 외조(外祖), 외종(外從, 외삼촌의 아들이나 딸)

(다)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

외당숙(外堂叔), 외당숙모(外堂叔母), 외사촌(外四寸), 외삼촌(外三寸), 외삼촌댁(外三寸宅), 외삼촌어머니(外三寸-), 외손녀(外孫女), 외손자(外孫子), 외손주(外孫-), 외숙모(外叔母), 외숙부(外叔父), 외숙질(外叔姪), 외아자미(外-, 외조모(外祖母), 외조부(外祖父), 외조부모(外祖父母), 외조카(外-, 외종숙(外從叔), 외종숙모(外從叔母), 외종씨(外從氏, 외종형), 외종제(外從弟, 외사촌인 아우), 외종질(外從姪, 외사촌의 아들), 외종형(外從兄), 외증조모(外曾祖母), 외증조부(外曾祖父), 외할머니(外-, 외할머님(外-, 외할미(外-, 외할아버지(外-, 외할어머니(外-, 외형(外兄, 이종형)

그러나 ‘외(外)’는 “부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한자어 파생접두사 ‘친(親)’과 달리 예문 (12)(가),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어 어근으로서의 기능도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親)’은 “혈족”을 뜻하는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가 현대국어에 들어서야 “부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국어의 파생접두사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외(外)’는 이미 18, 19세기의 언간자료에서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국어의 파생접두사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친(親)’은 일단 의미 면에서 원래의 한자어 어근 ‘친(親)’과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접두사성 형태소로서의 ‘친’이 “혈족”의 의미를 가진 반면에 파생접두사 ‘친(親)’은 “부계의 피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원래의 한자어 어근이 가지고 있던 “혈족”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파생접두사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친(親)’은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할 때도 원래의 한자어 어근 ‘친(親)’과 구별되는 결합상의 제약을 보여준다. 한자 원래 의미를 가지고 한자어 어근으로서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혈족”의 의미를 가지던 ‘친(親)’은 후행하는 어기의 결합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친족, 친지, 친정’에서처럼 비자립적인 한자어 어근과 결합할 수도 있고, ‘친동기, 친동생, 친아우, 친형제, 친누이, 친형, 친딸, 친아들, 친자식,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어버이’처럼 자립적인 한자어 명사어간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친(親)’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조모, 친조부, 친삼촌, 친사촌’에서처럼 자립적인 친족 관련 명사어간과만 결합할 수 있다.

3.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뜻하는 ‘시(媿)’와 ‘처(妻)’의 출현양상

국어에서 부계와 모계의 친족을 구별하기 위한 한자어 형태소로 ‘친(親)’과 ‘외(外)’가 쓰인다면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의 계통상 분류를 나타내는 한자어 형태소로 ‘시(媿)’와 ‘처(妻)’가 쓰인다. ‘처(妻)’는 ‘나’가 남성인 경우이며, ‘시(媿)’는 ‘나’가 여성인 경우이다.

먼저 ‘시(媿)’가 언간에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가) [자립성 비친족어 어간에 결합]

식동(媿-, 시댁의 종) <진주하씨묘-128, 17세기 전기>

식집(媿-) <순천김씨묘-068, 1550-1592> <순천김씨묘-034, 1550-1592> <순천김씨묘-042, 1550-1592> <선세언록-23, 1681-1689> <숙취-18, 1653-1674> <숙명-02, 1652-1659> <숙명-44, 1663> <김성일가-017, 1841>

시집(媿-) <추사가-45, 1897>

(나) [비자립성 친족어 어근에 결합]

식모(媿母) <송준길가-71, 1767> <선세언적-12, 1727> <추사가-09, 1793> <추사가-10, 1793> <추사가-14, 1794> <김성일가-069, 1848> <숙취-14, 1653-1662>

식미(媿妹, 시누이) <송병필가-60, 1890>

식부(媿父) <김성일가-067, 1838> <김성일가-068, 1848> <김성일가-069, 1848> <김성일가-070, 1849> <송시열-1, 1671> <숙명-50, 1652-1658> <김성일가-066, 1765> <송시열-1, 1671> <송시열-1, 1671>

식조(媿祖) <송시열-1, 1671> <김성일가-104, 1847>

(다)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

식누의(媿-) <김성일가-022, 1847> <김성일가-026, 1847> <김성일가-

090, 1850-1862)

식동칭(媿-) 〈이동표가-21, 1671〉 〈김성일가-090, 1850-1862〉 〈김성일가-099, 1829〉 〈송시열-1, 1671〉 〈숙취-30, 1662〉 〈김성일가-137, 1849〉

식모친(媿母親) 〈김성일가-069, 1848〉 〈김성일가-070, 1849〉

식부모(媿父母) 〈선찰-9-112, 1660-1708〉

식삼촌(媿三寸) 〈선찰-9-015, 1688-1709〉 〈김성일가-156, 1848〉

식서모(媿庶母) 〈송병필가-45, 1908〉

식숙모(媿叔母) 〈송병필가-74, 1896〉 〈송병필가-74, 1896〉

식스촌(媿四寸) 〈김성일가-158, 19세기 중반〉

식아바니(媿-) 〈김성일가-057, 1850〉

식아비(媿-) 〈숙명-20, 1654〉

식아주비(媿-) 〈추사가-08, 1793〉

식어미(媿-) 〈김성일가-043, 1848〉 〈선찰-9-103, 1700〉 〈김성일가-068, 1848〉 〈김성일가-163, 1850〉

식조모(媿祖母) 〈추사가-11, 1793〉 〈김성일가-103, 1847〉

식조부(媿祖父) 〈김성일가-106, 1847〉

식종조모(媿從祖母) 〈송병필가-80, 1892〉

식직종조모(媿再從祖母) 〈송병필가-79, 1891〉

식팔촌(媿八寸) 〈송병필가-59, 1902〉

시어미(媿-) 〈김성일가-097, 1850〉 〈김성일가-098, 1850〉 〈송병필가-43, 1906〉

언간에서 한자어 형태소 ‘시(媿)’는 대부분 ‘식-’로 나타난다.¹³⁾ ‘시(媿)’의 경우에는 (13)(가)의 예들처럼 비친족어 어간과 결합하거나 (13)(나)의 예들처럼 비자립성 친족어 어근과 결합하여 보통의 한자어 어근처럼 쓰이는 경우는 드물고, 국어의 친족어 자립성 어간과 결합하여 접두사성 형태소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13) 양주동(1956:45)에서는 ‘식집(媿家)’의 ‘식-’의 原義는 ‘새(新)’의 原音 ‘식-’의 轉化로 대개 ‘식집, 식아비, 식앗’ 等語의 國古적 源의는 ‘新家, 新父, 新妻’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媿’의 본음 ‘사가’ ‘시’로 바뀐 것은 〈三國遺事 卷一, 辰韓〉 소재인 ‘羅京三十五金入宅中’의 ‘溪曲宅(시내구비스 집)’을 ‘思內曲宅’으로 기록한 이두식 표기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하였다.

14) 언간 이외의 국어사 문헌자료에서도 ‘식(媿)’는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들 자료에서도 ‘식(媿)’는 소수의 비친족어 어간에 결합한 예가 보이고 다음과 같이 대부분은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하였다.

[자립성 비친족어 어간에 결합]

식거리 〈오륜3:28〉, 식결레 〈가례5:4〉, 식권당 〈은중경연해16〉, 식집 〈여사해2:15〉 〈오륜3:21〉 〈동신탈:2b〉 〈속삼강행실도 열2〉

‘시(媿)’는 시집을 나타내는 한자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국자(國字)로 알려져 있다.¹⁵⁾ 인간에서는 한자어 형태소 ‘시(媿)’가 ‘나가 여성인 경우에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뜻하는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서의 쓰임이 주된 기능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에서 ‘시(媿)’는 ‘나가 여성인 경우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뜻하는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14)

(가) [비자립성 비친족어 어근에 결합]

시가(媿家), 시외편(媿外便, 남편의 외가 쪽, 남편의 외가붙이)

(나) [자립성 비친족어 어간에 결합]

시가족(媿家族), 시택(媿宅), 시외가(媿外家), 시집(媿-)

(다) [비자립성 친족어 어근에 결합]

시모(媿母), 시부(媿父), 시숙(媿叔)

(라)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

시고모(媿姑母), 시고모부(媿姑母夫), 시누(媿-), 시누이(媿-), 시누(媿-), 시당숙(媿堂叔), 시동생(媿同生), 시며느리(媿-), 시모녀(媿母女,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시부모님(媿父母-), 시삼촌(媿三寸),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

시누의 <가례도:16a>, 시늉촌손 <가례도:16a>, 시늉촌손녀 <가례도:16a>, 시덜녀 <가례도:16a>, 시부모 <동신희4:87b> <가례5:29a> <소학언해 선조관2:3> <오륜3:4>, 시삼촌고 <가례도:16a>, 시삼촌딜 <가례도:16a>, 시삼촌딜처 <가례도:16a>, 시삼촌숙부모 <가례도:16a>, 시스촌누의 <가례도:16a>, 시스촌대고 <가례도:16a>, 시스촌대부모 <가례도:16a>, 시스촌손 <가례도:16a>, 시스촌손녀 <가례도:16a>, 시스촌손처 <가례도:16a>, 시스촌아자비 <가례도:16a>, 시아비 <내훈 선조내사본1:56> <선소2:2>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7:1> <역어상:58a> <가례:6:4a> <아학편 상1> <여사서언해4:30> <초두해8:67> <삼강 효31>, 시아비어미 <초두해11:24>, 시아자비 <동신속삼강 열4:2b>, 시아자비처 <가례도:16a>, 시어마님 <동신희2:26b> <번역소학9:29>, 시어미 <가례6:25b>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7:1> <동문유해상11> <동신희6:14b> <삼강 효5> <선사내훈1:56> <선소2:2> <신증유해상20> <아학상1> <여범3> <오륜1:58> <주해철자문15> <초두해8:67>, 시어버시 <번소7:33> <삼강 열29>, 시어버이 <동신속삼강 열7:4> <선소5:66> <속삼강행실도 열9> <여사해2:17>, 시엄이 <동신희8:26b> <역어상:58a> <번소9:64> <선소2:19>, 시오촌고 <가례도:16a>, 시오촌딜 <가례도:16a>, 시오촌딜녀 <가례도:16a>, 시오촌딜처 <가례도:16a>, 시오촌숙부처 <가례도:16a>, 시외조부모 <가례도:16a>, 시외조부모 <가례도:16a>, 시증딜녀 <가례도:16a>, 시증딜손 <가례도:16a>, 시증조부모 <가례도:16a>, 시칠촌딜 <가례도:16a>, 시칠촌딜녀 <가례도:16a>, 시한미 <여범4, 영조대>

15) (金鍾韻, 2014:305-306)에서는 ‘媿’는 <集韻>에 <新慈切>로 나타나 있고, ‘媿女字或从司’라 하여 ‘女’를 뜻하는데, ‘사’의 음이 ‘시’로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媿’가 <신자전>에는 ‘媿 시夫家시집官簿書多用之’로 풀이되어 있고, 현행 자전에 ‘시집 시’라 하여 國字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국자가 아니라 국음자라 하였다.

시서모(媿庶母, 시아버지의 첩), 시서조모(媿庶祖母), 시아버님(媿-, 시아버지(媿-, 시아버(媿-, 시아우(媿-, 시동생의 북한어), 시아재(媿-, 시아주비의 방언(강원)], 시아재미(媿-, 시아주버니의 방언(강원, 경상, 평안)], 시아주머니(媿-, 시아주버니(媿-, 시아주비(媿-, 시동생 또는 시아주버니의 낮춤말), 시어른(媿-, 시어머니(媿-, 시어머님(媿-, 시어미(媿-, 시외삼촌(媿外三寸), 시외숙(媿外叔), 시외조모(媿外祖母), 시외조부(媿外祖父), 시외할머니(媿外-, 시외할아버지(媿外-, 시이모(媿姨母), 시이모부(媿姨母夫), 시조모(媿祖母), 시조부(媿祖父), 시할머니(媿-, 시할아버지(媿-, 시형(媿兄, 시아주버니)

다음은 '나가 남성인 경우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의 계통상 분류를 나타내는 한자어 형태소 '처(妻)가 언간에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인간자료에서 '처(妻)'는 명사어간으로서의 용법도 많이 나타난다(처(妻) <선세언독-40, 1705> <추사가-11, 1793> <송병필가-08, 1889> <명성황후-094, 1885-1890>].

예문 (15)는 인간자료에서 '처(妻)가 나타나는 용례들이다.

(15)

(가) [미자립성 비친족어 어근에 결합]

처가(妻家) <김성일가-001-1, 1765> <송병필가-16, 1891>

처변(妻邊, 처가 쪽) <김성일가-001-3, 1767>

(나) [미자립성 친족어 어근에 결합]

처모(妻母)¹⁶⁾ <송병필가-89, 1884>, 처모 <선세언독-13, 1661-1697> <선세언독-14, 1678-1697> <김성일가-086, 1846> <김성일가-087, 1847> <김성일가-089, 1867> <김성일가-090, 1850-1862> <안동권씨-1, 1830> <송병필가-88,1869> <김성일가-086, 1846> <김성일가-087, 1847> <김성일가-088, 1855> <김성일가-089, 1867>

처남(妻舅) <자손보전-31, 1815-1843> <선세언적-14, 1762-1767> <이동표가-28, 1677>

16) 언간에서 배우자의 부모를 뜻하는 '처모', '처부'는 '장모', '장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장모(丈母) <진주하씨묘-055, 17세기 전기> <진주하씨묘-166, 17세기 전기> <추사가-24, 1771-1793> <선세언독-15, 1660-1696> <진주하씨묘-126, 17세기 전기> <진주하씨묘-071, 17세기 전기> <진주하씨묘-071, 17세기 전기> <진주하씨묘-096, 17세기 전기> <진주하씨묘-1025, 17세기 전기> <진주하씨묘-142, 17세기 전기>(언간)

장인(丈人) <추사가-24, 1771-1793> <추사가-22, 1791-1793> <추사가-04, 1791>(언간)

언간자료에는 ‘처(妻)’가 결합된 친족어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媿)’에 비해서 상당히 드물게 나타난다. 아마도 인간의 주된 발신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 아내와 관련된 친족어를 지칭하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¹⁷⁾

‘처(妻)’는 ‘처남, 처모’의 경우와 같이 비자립성 친족어 한자어 어근에 결합한 예만 나타나고 국어의 자립성 어간에 결합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현대국어에 오면 한자어 형태소 ‘처(妻)’가 나타나는 용례가 조금 더 다양해진다.

(16)

(가) [비자립성 비친족어 어근에 결합]

처가(妻家), 처산(妻山, 아내의 무덤), 처상(妻喪, 아내의 상사), 처속(妻屬, 처가속), 처당(妻黨, 처족)

(나) [비자립성 친족어 어근에 결합]

처남(妻男), 처모(妻母), 처부(妻父)

(다)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

처고모(妻姑母), 처당숙(妻堂叔), 처부모(妻父母), 처사촌(妻四寸), 처삼촌(妻三寸), 처조카(妻-), 처형(妻兄)

현대국어에서는 예문 (16)(다)에서처럼 ‘처(妻)’가 친족어 자립어간에 결합하여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7) 인간 이외의 국어사 문헌에는 ‘처(妻)’가 결합한 용례들이 언간자료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이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고 있지만,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한 ‘처부모, 처형’이 나타나 이후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자립성 비친족어 한자어 어근에 결합]

妻眷 <석상6:4a> <석상13:19b> <석상6:8a>, 처권 <월인상:51> <석보6:4> <석보13:19>, 처가 <가례4:9a>, 妻黨 <가례도:16b>, 妻喪 <가례9:22a>, 妻族 <가례6:33a>

[비자립성 친족어 한자어 어근에 결합]

妻媿 <역어상:58a>, 처데 <동신속삼강, 열5:14> <한청5:41>, 妻母 <역어상:58a>, 처모 <한청5:40>, 妻父 <역어상:58a>, 처부 <한청5:40>

[자립성 친족어 어간에 결합]

처부모 <가례4:27a> <醫民:3b>, 처형 <한청5:40>

IV. 맺음말

언간은 떨어져 있는 친인척 간에 이루어진 중요한 의사 전달 수단이었다. 따라서 언간에는 여타의 국어사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친족관련 어휘가 가장 풍부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언간에 나타나는 친족 관련 접두사성 한자어 형태소 ‘친(親), 외(外), 시(媿), 처(妻)’의 출현양상을 검토하고 이러한 친족 관련 접두사성 한자어의 의미기능과 어휘부 내에서의 지위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언간에 나타나는 친족 관련 접두사성 한자어의 출현양상을 고찰하기 전에 한자어 형태소 ‘생(生)’을 통해 한자어 어근이 접두사성 한자어 형태소의 단계를 거쳐 한자어 파생접두사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자어 파생접두사로 확립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언간에 나타나는 부계와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친(親)’과 ‘외(外)’의 출현양상을 검토한 결과 “혈족”의 의미와 구별되어 “부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파생접두사로서의 ‘친(親)’은 언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외(外)’는 언간에서 친족어 자립성 어간에 결합하여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의 파생접두사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친(親)’은 일단 의미 면에서 원래의 한자어 어근 ‘친(親)’과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파생접두사 ‘친(親)’은 접두사성 형태소로 쓰였을 때의 “혈족”의 의미와 구별되는 “부계의 피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원래의 한자어 어근이 가지고 있던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로 발전한 것이다. 파생접두사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친(親)’은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할 때도 원래의 한자어 어근 ‘친(親)’과 구별되는 결합상의 제약을 보여준다.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뜻하는 ‘시(媿)’와 ‘처(妻)’가 언간에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시(媿)’는 대부분 자립성 친족어 어간과 결합하여 접두사성 형태소로 쓰이고 있었지만, ‘처(妻)’는 비자립성 친족어 한자어 어근과 결합한 예만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國語學叢書 30). 태학사, 1998.
국립국어연구원 편저,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奇周衍, 『近代國語 造語論 研究(1): 派生語篇』. 태학사, 1994.
金鍾埴, 『韓國 固有漢字 研究』. 보고사, 2014.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國語學叢書 21). 태학사, 1996.
백두현,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2003.
宋喆儀,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國語學叢書 18). 태학사, 1992.
宋喆儀·李南淳·金倉燮, 『국어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992.
安秉禧·李珖鎬, 『中世國語文法論』. 學研社, 1990.
안소진,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國語學叢書 69). 국어학회, 2014.
李翊燮·任洪彬, 『國語 文法論』. 學研社, 1983.
임지룡,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1992.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저,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1995.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3』. 태학사,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4-10』. 태학사, 2009.
허웅,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1975.
_____,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출판사, 1992.
황문환 외,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2016.

2. 논문

- 김창섭, 「形容詞 派生 接尾辭들의 機能과 意味: ‘-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震檀學報』 58, 1984.
_____, 「국어 파생어의 통사론적 문제들」.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96.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 연구』(국어학회 국어학총서 49). 태학사, 2005.
宋基中, 「現代國語 漢字語의 構造」.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宋喆儀, 「派生語 形成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38호, 1977.
_____, 「派生語 形成과 通時性的의 問題」. 『國語學』 12호, 1983.

- _____,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제약 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 1988.
- 沈在箕, 「漢字語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호, 1987.
- 양주동, 『고전독본』. 探求堂, 1956.
- 李翊燮, 「漢字 造語法의 類型」.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1968.
- _____, 「국어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국 문 초 록

언간은 조선시대에 떨어져 있는 친인척 간에 이루어진 중요한 의사 전달 수단이었다. 따라서 언간에는 친족 관련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언간에 나타나는 친족 관련 접두사성 한자어 형태소 ‘친(親), 외(外), 시(媿), 처(妻)’의 출현양상을 검토하고 이러한 친족 관련 접두사성 한자어의 의미기능과 어휘부 내에서의 지위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한자어 어근이 어휘부에서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가 되고 다시 이것이 한자어 접두사가 되는 과정을 ‘생(生)’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파생접두사로 확립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한자어 형태소가 국어의 파생접두사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면 일단 의미 면에서 원래의 한자어 어근과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원래의 한자어 어근이 가지고 있던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파생접두사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면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할 때도 원래의 한자어 어근과 구별되는 결합상의 제약을 보여준다.

언간에서 부계의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친(親)’과 ‘외(外)’의 출현 양상을 검토한 결과 ‘친(親)’이 “혈족”의 의미와 구별되어 “부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파생접두사로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모계의 피붙이”를 뜻하는 ‘외(外)’는 친족어 자립성 어간에 결합하여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뜻하는 ‘시(媿)’와 ‘처(妻)’가 언간에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시(媿)’는 대부분 자립성 친족어 어간과 결합하여 접두사성 형태로 쓰이고 있었지만, ‘처(妻)’는 비자립성 친족어 한자어 어근과 결합한 예만 나타났다.

투고일 2017. 6. 20.

심사일 2017. 7. 4.

게재 확정일 2017. 8. 24.

주제어(keyword) 언간(The Hangeul letter of the Joseon Dynasty), 친족어(kinship-related vocabulary),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prefixed sino-korean morpheme), 한자어 접두사(sino-korean prefix)

